

## 여성장애인의 실태<sup>1)</sup>와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 내지 이중적인 불이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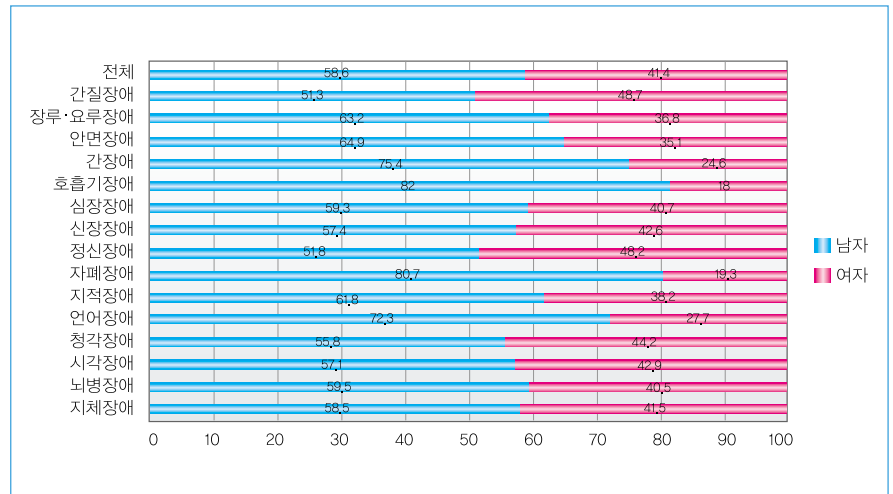
- 즉,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 및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1. 조사대상자 현황

- 전체 장애인 2,137,226명 중 여성장애인은 41.4%, 남성장애인은 58.6%로 남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분포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노령기 장애가 증가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등 관련 장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여성장애인의 인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1] 조사대상 장애인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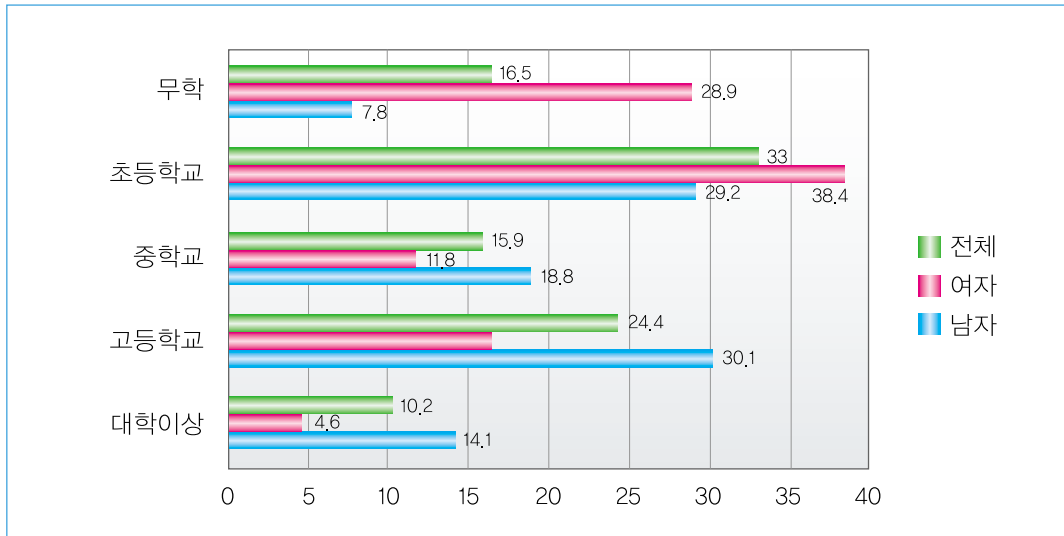
### 2. 여성장애인의 실태

- 교육수준
-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33.0%, 고등학교 24.4%, 중학교 15.9%, 무학 16.5%, 대학이상 10.2%의 순으로 나타나,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의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고등학교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아 성별로 차이가 있었음.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남성 37.0%, 여성 67.3%로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장애인의 저학력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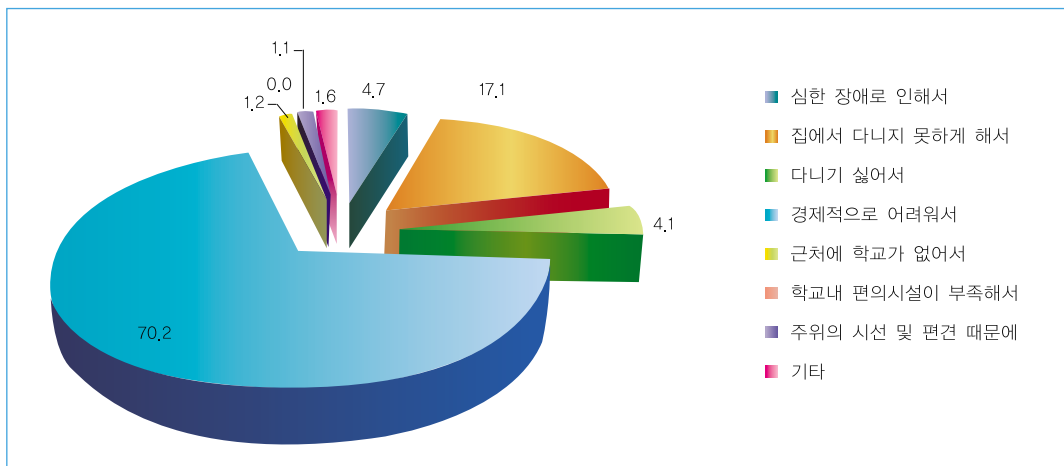
[그림2] 교육정도



주: 미취학자 97명 제외

○ 여성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라는 응답이 남성장애인의 4.4%보다 약 4배 높았음

[그림3] 여성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1순위)



### □ 취업인구 및 취업률

○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70.8천명, 인구대비 취업자비율은 37.7%이며,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47.6%이고 여성장애인은 23.7%로써 남성장애인의 취업이 여성장애인 보다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취업인구 및 취업률의 성별 경향은 장애인과 동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나, 그 비율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우 낮은 실정임

〈표1〉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장애인	남자	1,209,706	631,195	575,580	55,615	578,511	52.18	91.19	8.81	47.58
	여자	861,890	219,642	204,474	15,168	642,248	25.48	93.09	6.91	23.72
	계	2,071,596	850,837	780,054	70,783	1,220,759	41.07	91.68	8.32	37.65
비장애인	남자	19,441,000	14,103,000	13,576,000	527,000	5337,000	72.5	69.8	3.7	69.83
	여자	20,364,000	9929000	9,669,000	260,000	10,435,000	48.8	47.5	2.6	47.48
	계	39,804,000	24,032,000	23,245,000	787,000	15,772,000	60.4	58.4	3.3	58.40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3월」, 2009

□ 경제활동상태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직종)는 주로 단순노무종사자(29.4%), 농·어업종사자(23.5%), 판매종사자(11.8%), 서비스종사자(9.8%),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8.1%)에 편중되어 나타남

- 반면, 통계청의 비장애인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전문가 19.1%, 사무종사자 15.0%, 단순노무종사자 13.0%, 판매종사자 12.9%, 서비스종사자 11.6%,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10.1%의 순으로 장애인에 비해 전문가나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음
- 남녀장애인 모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남성 27.5%, 여성 34.8%로 높았는데, 특히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7.3% 포인트 높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가 극히 취약함

〈표2〉 경제활동분야(직종)

(단위: %, 명)

금융자산	장애인			비장애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5	0.0	1.1	3.6	0.5	2.3
전문가	2.6	0.2	2.0	18.5	20.0	19.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0	2.7	2.9			
사무종사자	4.3	4.0	4.2	13.5	17.1	15.0
서비스종사자	7.5	16.0	9.8	6.5	18.7	11.6
판매종사자	9.4	18.4	11.8	10.8	15.8	12.9
농업·임업·어업숙련종사자	24.9	19.5	23.5	5.7	5.4	7.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0.2	2.0	8.1	14.1	3.7	10.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8.9	2.4	7.2	16.8	3.1	11.0
단순노무종사자	27.5	34.8	29.4	10.3	15.6	1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574,147	204,475	778,622	13,576,000	9,669,000	23,245,000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3월」,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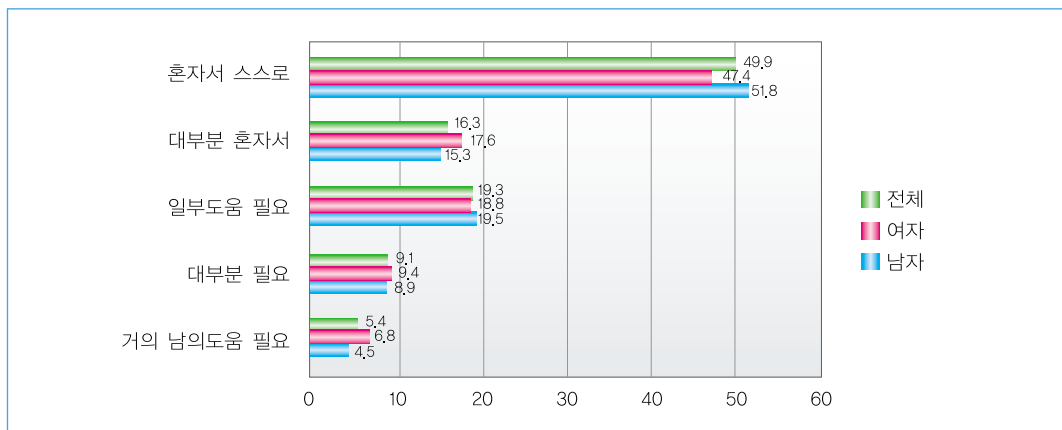
주: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 제외

□ 일상생활 도움 필요상태

○ 전체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는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대부분 도움없이 할 수 있다’가 전체의 66.2%였고,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3.8%였음

- 여성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비율이 35.0%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2.1% 포인트 높게 나타남.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28.4%)나 이용경험정도(2.8%)가 매우 낮은 상태임

[그림4]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희망하는 서비스

○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 (17.6%), ‘출산비용 지원’ (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3.6%)의 순이었음

<표3> 여성장애인의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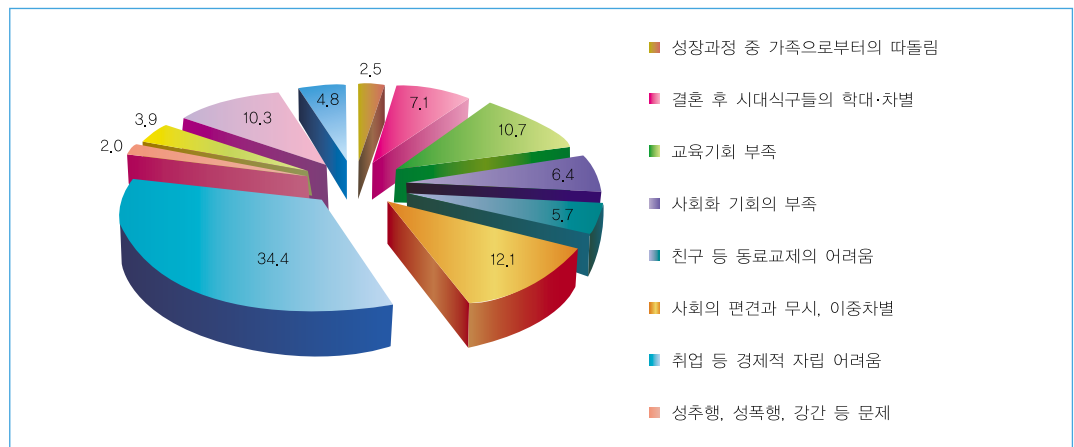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7.6	7.1	6.5	8.7	5.7	6.8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0.5	1.3	2.2	1.8	1.8	1.8
출산비용 지원	4.6	15.3	16.1	8.0	18.6	14.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1.9	13.3	5.2	9.6	7.2	8.1
산후조리 서비스	0.1	13.4	7.6	4.7	10.6	8.5
육아용품 대여	-	0.1	-	0.0	0.0	0.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1.1	15.6	13.1	12.3	14.3	13.6
자녀교육도우미	4.2	7.6	9.9	8.0	9.1	8.7
가사도우미	4.9	12.9	21.5	16.4	18.2	17.6
활동보조도우미	18.8	3.4	4.8	11.2	2.8	5.8
건강관리프로그램	5.8	4.4	8.8	6.6	7.7	7.3
상담서비스(심리정서)	16.4	4.1	2.8	6.3	3.5	4.5
자조집단(멘토)	10.9	1.4	1.4	5.6	0.5	2.3
기타	3.1	-	-	0.8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7,191	48,579	111,509	63,996	113,283	177,279

- 가사도우미의 경우 40세 이상의 연령 층에서, 그리고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더욱 필요로 함. 이는 여성장애인의 80% 이상이 가사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특히 어려운 점

- 특히 어려웠던 점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34.4%),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12.1%), ‘교육기회 부족’ (10.7%)의 순이었음
-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30~39세 연령대, 경증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많았음

[그림5] 여성장애인으로서는 특히 어려운 점



□ 가족내 차별 및 폭력경험

-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11.4%, 남성은 8.0%가 가족내 차별·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9.7%인 것과 비교시 여성장애인이 더 높았음

<표4>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자주 있다	2.0	2.8	2.3
가끔 있다	6.6	8.6	7.4
없다	91.4	8.6	90.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2,137,226

□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2.1%, 남성은 0.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이 더 높았고, 전체 평균 1.0%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았음

〈표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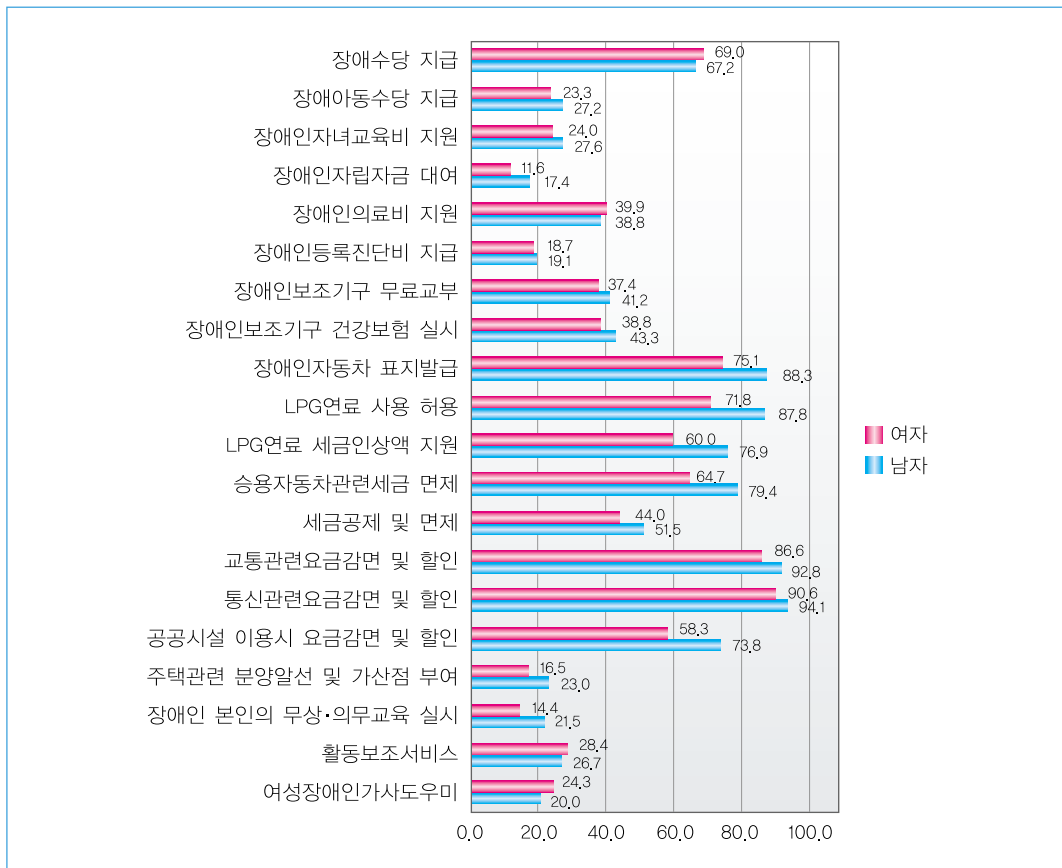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있다	0.3	2.1	1.0
없다	99.7	97.9	99.0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2,137,226

□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통신·교통 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이 85%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LPG연료 사용 허용’ (70% 수준), ‘장애수당’ (69%)의 순이었음
- 남성장애인과 비교시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고, 특히 승용차 관련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남성장애인이 더 높았음.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량 소유율(남성장애인 53.3%, 여성장애인 43.7%)이 낮고, 외출빈도(거의 매일 외출의 경우 남성은 73.3%, 여성은 57.2%)가 적음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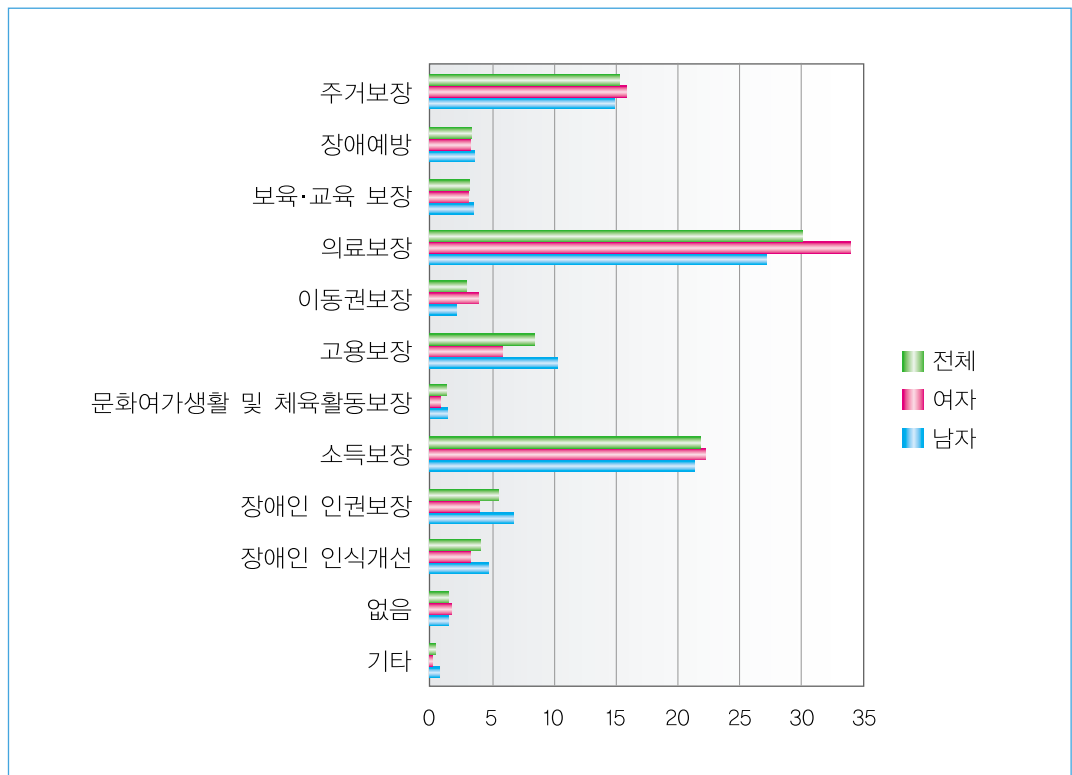
[그림6]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 □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여성장애인들은 의료보장(34.0%), 소득보장(22.3%), 주거보장(15.9%)의 순으로 많았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도 동일한 순위를 보임
- 따라서 장애인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전체적으로 의료보장, 소득보장, 주거보장의 순으로 많은 욕구가 있었는데, 여성장애인들의 욕구도가 의료와 소득영역에서 가장 높았음

[그림7]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순위)



## 3. 정책 과제

### □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임.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성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관심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됨. 따라서 여성장애인복지정책 마련시 복지와 여성영역에서 공동의 관심과 서비스개발이 필요시됨

### □ 개인별 특성에 맞춘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은 연령, 학력, 장애상태, 경제상태 등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태 및 복지욕구에 차이가 있었음

- 이는 여성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개인별 차별화전략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중 40세 이상의 연령 층에서, 그리고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 가사도우미를 더욱 필요로 함. 이는 여성장애인의 80% 이상이 가사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여성장애인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지원을 통한 인적자본형성 및 역량강화

- 교육은 취업과 결혼 등 중요한 사회활동의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 요소가 됨. 따라서 자립의 기반은 일정 수준의 학력 또는 기능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시 됨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 여성장애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컸는데, 이는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따라서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직종 개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시 됨

□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적 지원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중증인 경우가 더 많고, 주된 장애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전문 의료인의 확보,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등의 여성장애인 접담 의료기관의 설치 및 재활병의원 내 여성장애인 전담부서의 설치 확대,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통한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함

□ 성·가정폭력 예방

- 여성장애인이 성·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수행과 각종 폭력피해 실태 및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시 됨

김성희 (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2-380-82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